

## 孟思誠 〈江湖四時歌〉의 짜임새

양 희 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江湖四時歌〉가 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네 계절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서로 다른 글감들을 사용하였지만, 내용의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한 연시조이며, 이 통일성 유지는 하나의 일정한 틀을 사용한 데 근거하였음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일정한 틀은 겉틀과 속틀로 나누었다.

겉틀은 네 작품에 공통된 표현 부분이다. 그 내용은 '화자의 거처(江湖)·'화자(이 몸)·'화자와 임금의 관계(君恩) 및 '강호의 상태(江湖에 ㉠이 드니)', '화자의 상태(이 몸이 ㉡히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초장의 "江湖에 ㉠이 드니"를 구문의 생성 조건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표현의 압축과 간결함을 지적하고, 중장의 "亦君恩이샀다"를 구문의 생성 의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화자 개인 차원의 삶에 대한 만족을 표출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 삶의 만족을 사회적 차원의 태평성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속틀은 작품 내용의 세부 짜임이다. 이에 대해서는 네 작품을 초·중·종장 각각으로 묶어 분석한 다음, 네 작품의 공유된 짜임을 설명하고, 각각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겉틀에서 다른 〈江湖四時歌〉의 내용이 갖는 특성을 해명하였다.

네 작품의 초·중·종장을 각각 하나로 묶어 종합 분석하기 위하여 指標機能과 提示機能을 설정하여 그 내용의 짜임을 설명하였다. 초장은 공통으로 네 계절의 흥취를 표현한 것이며, 중장은 지표기능 어휘인 '화자'가 생략

\*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되어 제시기능 구절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장의 흥취를 행위나 상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장은 중장과 연결하여 함축적 표현이며, 사적인 삶과 공적인 가치관(君臣有義)의 관계에서 공적인 가치관으로 사적인 삶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江湖四時歌〉의 속들의 짜임은 ‘계절의 제시’→‘계절에 대한 발흥’→‘계절의 즐길 행위’→‘(心的·身體的) 平安’으로 전개된다. 문맥의 흐름에서 초장은 중장의 端緒가 되며, 중장은 초장에 대한 反應이며, 중장은 중장의 응축으로서 評價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속들의 짜임에 ‘感君恩’이 포함되면 겉들의 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작자가 작품의 본질을 개인의 平安에 둔 것처럼 꾸몄으나, 본래의 발상은 임금의 치적(태평성대)을 頌祝하려는 것이라고 결론하였다.

**핵심어** : 孟思誠, 江湖四時歌, 聯詩調, 겉들, 속들, 指標機能, 提示機能, 私的인 삶, 公的인 價値觀

## 1. 머리말

이 논문은 맹사성의 〈江湖四時歌〉 4수를 대상으로 작품의 크고 작은 짜임을 겉들과 속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양상들을 분석하고, 이 작품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구문요소의 指標機能(문장/내용의 중심 어휘/글감)과 提示機能(그 어휘/글감과 결합하여 그것이 특정한 의미/성격을 갖도록 작용하는 구절)을 설정하여 세밀한 내용 분석을 시도한다. 이로써 〈江湖四時歌〉에서 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네 계절의 특징을 담고 있는 다양한 글감들을 사용하여 작품군의 내용이 일관되고 통일되게 짜여진 양상을 해명할 것이다. 또한 이 작품군이 공유하여 통일성을 유지한 겉들의 성격<sup>1)</sup>과 연

시조로서의 조건을 해명할 것이다. 이에 포함하여 작자의 개별적인 창작기법을 설명하기도 할 것이다.

## 2. <江湖四時歌>의 겉틀

### (1) 짜임새

①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 溪邊에 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히움도 亦君恩이샀다

②

江湖에 녀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없다  
有信 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이샀다

③

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잇다  
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띄여 더더두고  
이 몸이 消日히움도 亦君恩이샀다

④

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허 남다  
샷갓 빗기쁘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이샀다<sup>2)</sup>

- 
- 1) 이에 대한 고찰은 필자의 「雙花店の 構造에 대한 再考」(『國語文學』 제34집, 국어문화회, 1999)에 이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다.
  - 2) 본고에서 다룬 <江湖四時歌>는 진서간행회본 『靑丘永言』에 수록된, 孟思誠(1360 공민왕9~1438 세종20)의 작품을 사용한다.

〈江湖四時歌〉는 다음과 같이 네 수에 공통된 틀을 갖추고 있다.<sup>3)</sup>

초장	江湖에	㉠이 드니	㉡다
중장	㉢		
종장	이 몸이	㉣히움도	亦君恩이샷다

이 틀을 이루는 세 어휘—‘江湖’·‘이 몸’·‘君恩’은 화자의 거처·화자·화자와 임금의 관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드니’, ‘…히움’은 강호의 상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하는 내용임을 암시한다. 이로써 江湖에 사는 話者가 君恩을 입은 사실을 표명한다. 그리고 ‘亦’은 화자가 강호를 제외한 모든 공간의 삶에서도 이미 군은을 입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 틀은 화자가 과거(宦路)와 현재(江湖)를 포괄한 시간적 공간적 모든 삶에 君恩이 미침에 감동하여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적절하게 표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틀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하여 ㉠·㉡·㉢·㉣의 내용 실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 (2) 形象化 技法

〈江湖四時歌〉 네 수의 전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시간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 이 시간의 흐름에는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永續을 함축하고 있다. 사계절의 연속은 시간의 흐름이 不斷하듯이 군은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뜻하며, 그 순환의 영속은 군은의 영원한 지속을 뜻한다. 이것은 삶의 만족에 대한 절대적인 표명이며, 그 만족의 원천이

3) 김홍규의 『육망과 형식의 詩學』(대학사, 1999)에 이 겉틀과 아울러 속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每首의 시상이 담은 경험의 양상과 그 전개 방식에도 일정한 틀이 작용해 있고, 이들이 중첩되면서 자연의 변모 속에 내재하는 항구적 조화의 감각을 조성한다는 사실이다.”(138쪽)

균은에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먼저 고찰할 것은 그 만족감을 형상화하는 표현방법으로서의 문장 짜임이다. 이에 대하여 두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종장 구문의 생성 의도에 대해서이다.

“이 몸이 ㉠희음도 亦君恩이샷다”에서 ‘-도’는 ‘亦’과 호응하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이렇게 변형되기 전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이 몸이 ㉠희음의 君恩이샷다’가 될 것이다. 이 문장에 내재되어 있는 因果關係로 다시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이 몸이 ㉠희니 君恩이샷다’ (나) ‘君恩이시니 이 몸이 ㉠희다’

이 두 문장에서 화자 자신의 상태를 평가한 기준은 君恩이다. (나)는 균은의 實效를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균은을 전제할 때, 화자 개인의 상태는 오직 이 (나) 하나로 결정되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절대적 관점이 (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가)에서 균은은 화자 자신의 상태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된다. ‘이 몸이 ㉠희니’가 중심 내용이며, 이에 상대되는 ‘君恩이샷다’는 可變의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극대화의 의도가 설명될 것이다. 예컨대, “이 중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sup>4)</sup>를 ‘이 중에 시름 업스니 君恩이샷다’로 치환하여 이 문장의 本旨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몸이 ㉠희니 漁父의 生涯로다’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이 의도에 맞게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앞부분에 이 가변성이 있다면, (나)와 같은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두 문장에서 화자의 관심이 (가)는 화자 자신의 상태가 중심 내용이므로 개인 차원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나)는 균은이 평가의 절대적

4) 이현보의 <漁父詞> 다섯 수 중 첫 제 수의 초장.

기준이며 이 문장 내용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포괄하는 공적 집단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곧, 삶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부연하면, (㉞)는 화자 개인의 세계가 태평함을 표명한 데 국한되고, (㉟)는 개인의 시각을 사회 차원으로 옮겨 태평성대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발상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구현되는 과정에 이 두 표현의 의도 중에서 한 의도가 선택될 것이다. 부연하여 “이 몸이 ㉞히음도 亦君恩이샅다”는 표현이 (㉞)의 의도적 표현일지, (㉟)의 공식적 표현일지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보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장 구문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이다.

“江湖에 ㉞이 드니, ㉟다”는 因果構文이다. ‘江湖에 ㉞이 드니’는 네 계절이 각각 든 객관적 사실을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라면, ‘㉟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 감흥 또는 삶터 주변에서 느낀 외적 감흥을 묘사한 것이다. 이 문장을 작품에서 되새기면, 이 문장은 각 계절의 감흥을 ‘㉞면, ㉟다’의 일정한 틀을 변형시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틀을 다시 발상에 가깝게 변형시켜 보면, ‘㉞에는 ㉟다(어떠하다)’가 되어, 어떤 상태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구현하는 변형 과정에서 ‘-드니’의 표현을 사용한 까닭을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형태의 측면으로 운율을 맞추어야 하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맞은 어휘를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다. 예컨대, ‘(계절)에는/이면 : (계절이)되니/오니/드니’ 중에 ‘드니’가 선택된 것은 화자가 ‘받아들임(受容)’ 행위와 관련이 있다. 내적 심리작용은 오감의 감촉을 받아들인 후에 일어난다. 그 심리작용의 결과로 말이나 글이 생성된다. ‘되니’는 단순한 상태, ‘오니’는 외적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드니’보다는 곧바로 심리작용을 일으

키기에는 축감이 약하다. 또한 ‘-에는/-이면’은 단순한 표현이어서 의도한 표현의 특정한 효과를 거두기에 약하다. 결국, ‘드니’는, ‘오니/되니’와 같이 현상을 제시하지만, 계절의 상태를 보고 감흥을 느껴서 영탄을 자아내는 과정에서 ‘보고 난 다음에서 느끼기 바로 앞까지’의 상태를 압축한 것이다. 부연하면, 이 작품 <江湖四時歌>에서 ‘(어떤 계절이) 드니’는 ‘보는’ 과정, 곧 외적 풍경의 묘사 등을 생략한 듯이 압축하여 간결한 표현의 참신함과, 겉으로는 간략하지만 안으로 많은 양이 담겨 있는 함축성을 또렷하게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 3. <江湖四時歌> 네 수의 짜임새

<江湖四時歌>의 겉틀에서 작품 네 수의 공통된 짜임새와 형상화 기법을 概說하였다. 이 항에서는 네 수의 내용과 세부 짜임 및 作意의 형상화 양상을 고찰한다. 이 고찰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수의 초·중·종장을 각각 분류하여 정리한다. 이것은 세부 내용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세밀하고 선명하게 분석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이다. 그리고 이 분석은 앞서 살핀 겉틀의 성격을 심화하고 확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 (1) 초장의 짜임

항	작품	㉠	㉡	㉢	
①	江湖에	봄	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②	江湖에	너름	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없다
③	江湖에	ㄱ을	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④	江湖에	겨월	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㉞는 네 계절 각각의 지칭인데, ㉞의 내용들 각각에 상대적인 개별성을 부여하는 단일한 指標機能을 한다. 이 기능은 문맥의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단순한 기능이다. 그런데 각 문장에서 보듯이 ㉞의 어휘가 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구절과 결합하여야 한다. “-이 드니”가 그것이다. 이 구절을 ‘특정하다’고 한 까닭은 지표와 결합하여 그 문장(표현)의 성격(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의 ‘形象化 技法’항에서 언급한 것을 참조하면, “-이 드니”는 계절이라는 지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에 따라 지표는 다양한 의미를 구현하게 된다. 이 특정한 어휘들이 하는 기능은 지표기능에 대하여 提示機能이라고 명명한다. 부연하면, 생략으로 간결하게 압축된 표현, 겉으로는 간략하지만 안으로 함축성을 가진 표현이라는 언급은 제시기능의 문학적인 특수 기능을 말한 것이다. 이 초장에서 전반 두 구가 지표기능을 하며, 후반 두 구가 제시기능을 한다. 앞의 지표기능 구절 세부에서는 ‘봄’이 지표기능, ‘-이 드니’가 제시기능, 뒤의 제시기능 구절에서 앞구가 지표기능, 뒷구가 제시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초장 전반 두 구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했으므로, 초장 후반 두 구인 제시기능 구절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㉞를 분석하기 편하게 도표로 먼저 정리한다.

작품 기능	1㉞	2㉞	3㉞	4㉞
指標	미친 興	草堂	고기	눈
提示	-이 절로 난다	-에 일이 없다	-마다 술져 있다	기피 자히 남다

㉞의 내용들은 시적 화자의, 네 계절에 대한 흥취를 표현한 것이다. 도표에 지표기능의 어휘와 제시기능의 구절을 구분하였다. 지표기능 어



휘를 보면, ‘興’과 ‘고기’는 ‘마음속’ ‘물 속’의 안 공간에 자리하며 動的인 성격을 가지고, ‘草堂’과 ‘눈’은 바깥 공간에 자리하며 靜的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어휘의 성격이 제시기능의 구절에 의하여 특수한 개별적 의미를 확보한다. ‘興(심적 상태)+절로 나다’는 심적 감흥이 안에서 바깥으로 공간 이동하여 흥겨움의 표출을 나타내고, ‘草堂(거처)+일이 없다’는 바깥 공간의 한적한 상태를 나타내고, ‘고기(수확물)+살찌다’는 물 밖의 가을걷이와 동일한 물 안의 풍요가 안팎의 일체를 나타내고, ‘눈(다양한 사물들을 하나처럼 보이게 함)+깊이가 한 자 넘다’는 그 쌓인 적설량을 통해 세계의 외적 통일 상태를 나타낸다.

‘興’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함은 아주 흥겨운 심적 상태<sup>5)</sup>를 뜻하고, ‘草堂의 한적함’은 오히려 차분한 상태로 흥겨운 심적 상태와 대조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살찐 고기의 魚躍하는 모습과 눈 쌓인 풍경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대조를 이룬다. 이것으로 작품들 사이, 곧 작품군의 율동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율동이 단일 작품의 내적 율동과 조화를 이룰 때 이 <江湖四時歌>의 미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율동과 함께 ㉔의 지표기능 어휘를 화자의 공간적 시각에서 구분하면, ‘마음 → 집 안 → 강 → 마을’로 공간이 점점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전개는 네 계절의 순서 및 계절의 특징과 상응하는 짜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진적 상승과 율동의 짜임은 이 작품들이 聯詩調라는 체제에 걸맞은 미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특징지을 수 있게 한다.

5) “미친 興”의 ‘미친’은 ‘아주 흥겨움’을 직접 드러내는 말인데, 그 풀이를 ① 흥이 마음속 어디에서 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음(‘狂’의 뜻), ② 바깥 봄 경치를 봄으로써 흥이 마음에 자극을 한 것(‘到’의 뜻)으로써 二重의 풀이할 수 있다. 즉, ①은 작품 내용에 직접 해당되는 의미라면, ②는 내포된 의미로서 언어의 미적 효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이다.

## (2) 중장의 짜임

작품 \ 항	㉠			
①	濁膠	溪邊에	錦鱗魚	안주로다
②	有信호	江波는	보내느니	보람이다
③	小艇에	그물 시러	홀리띄여	더더 두고
④	삿갓	빛기쁘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은 네 작품의 중장 전체이다. 이 문장에는 지표기능과 제시기능의 어구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이 점에 주의하여, 앞의 「초장의 짜임」에서는 발상을 구현한 문장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문장으로 구현된 발상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①㉠은 ‘탁주를 가지고 물가에 가서 잉어를 잡아 안주로 장만하여’ 봄을 즐기는 화자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화자의 이 행위를 특징짓는 어휘는 ‘濁膠(술)’, ‘溪邊(장소)’, ‘錦鱗魚(안주)’이다. 이 문장에서 이 세 어휘는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특징짓는 어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표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지표기능 어휘는 생략된 ‘화자’이고, 제시기능 구절은 ㉠ 자체이다. 중장의 이 제시기능은 초장의 지표기능 구절인 ‘江湖에 ㉡이 드니’를 이 중장에 연결시켜도 어색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초장의 지표기능 구절을 연결시켜도 문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장의 내용이 초장의 ㉠처럼 ‘계절이 들어’ 화자가 느낀 흥취를 행위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마음속의 감흥을 겉으로 표출하여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곧, 초장의 제시기능 구절의 내용을 중장이 이어받아, 억제할 수 없는 감흥을 행위로 옮김으로써 과도한 감흥을 발산하여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장의 내용이 초장의 제시기능 구절과 연결되어 문맥의 전개를 조절하는 성격은 다른 세 작품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중장에 지표기능 어휘인 '화자'가 생략된 것은 화자가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②㉔는 화자가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함'에 여름 더위를 식히는 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중장의 문장 자체로는 '江波'가 표기 기능을 하고, '바람을 보내다'가 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이 '화자가 강바람을 쐬다'의 변형이라는 감안하면, 초장과 같은 표현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할 일이 없어 한적한 상태'에 '강바람'이 그 한적한 상태에 변화를 주되 그 한적함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장의 역할은 초장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 쓴 '有信함'은 '때가 되면 어기지 않고 찾아오는' 자연의 順理를 말하기 위함이다. 이는 화자 자신이 도리에 맞게 사는, 삶의 자세를 함축한 표현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③에 담긴 '無慾의 모습'과 ④에 보이는 '소박한 차림'이 이를 보완해 준다. 그리고 또 설명되어야 할 것은 화자와 '江波'의 관계이다. 바람이 물결을 일게 하는데, 물결이 바람을 보낸다고 뒤집어 표현한 것은 물가에 사는 漁父인 화자가 바람을 매개로 자신과 물(자연)의 親和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친화는 물이 그치지 않듯이 영구히 변함 없음을 내포한다. 이것을 '有信함'으로 대신한 것이다.

③㉔는 '小艇에 그물을 신고 강 가운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둔 채 고기 잡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배가 흘러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화자의 無心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 無心은 物慾이 없음을 뜻하고, 이 無慾은 의도적인 삶을 벗어난 모습을 뜻한다. 의도적인 삶이라고 한 것은 宦路에서의 세속적인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장 안에서 '배'와 '그물'은 '흘리피여'와 '더더 두고'에 관련해서는 지표기능 어휘에 해당되는데) '배'와 '그물'은 본래 사용 목적이 있는 사물임에 대해서 '흘리피여'와 '더더 두고'는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고, 이 풀이를 확대하여 세속적 삶과 연관짓고, 무욕의 삶으로 풀이한 것이다.

특히 배를 ‘홀리뛰여’ 뚸은 배를 물의 흐름에 맡겨 그와 일체가 되는 것, 곧 순리에 맞게 사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② ㉠가 순리적 삶의 외적 형용이라면, 그 내적 형용이다. 그리고 초장에서 잉어를 잡은 것은 술이 있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주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다른 임의의 안주가 아니라 그 환경에 어울리는, 格에 맞은 안주를 마련한 점에서 또한 순리에 따른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초장의 ‘살찐 고기’에서 일어날 수확의 흥이 증장의 고기잡이로 옮겨가는 것은 초장과 같은 짜임이다.

④ ㉡는 화자가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걸친’ 자신의 차림새를 묘사한 것인데, 이 차림은 집 바깥에서 겨울 강에서 하는 어름낚시와 같이 자신이 즐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어름낚시를 예로 든 것은 ③의 ‘그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겨울에는 물가에서 낚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것임을 적용시켜 본 것이다. ‘삿갓’과 ‘도롱이’는 민가에서 흔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소박한 삶을 형용하는 한편, 화자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글감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른 세 작품들에서도 ①의 ‘濁醪’가 그것이고, ②에서 인위적인 바람이 아닌, 자연의 ‘강바람’이나 ③에서 생계와 관련지어 볼 때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가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글감으로 사용한 것에도 그렇다.

그리고 화자가 삿갓을 ‘비스듬히 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묘사한 것은 한가하여 여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해학적인 표현이다. 도롱이로 ‘옷을 삼아’는 겨울 날씨에 적합하지 않은 도롱이를 방한용 겹옷을 걸친 모습을 또한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해학적인 표현은

삶의 만족에서 배어나는 여유의 표현이다. 이 여유는 앞의 세 작품에서도 貫流하여 공유되어 있는 정신적 평안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이 작품에서 초장의 내용이 눈이 많이 내려 추운 날씨를 암시한 것을 이어받아 방한 차림을 한, 의미의 연결 관계로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 (3) 중장의 짜임

작품	항		㉠			
①	이 몸이	閑暇	희움도	亦君恩	이샷다	
②	이 몸이	서늘	희움도	亦君恩	이샷다	
③	이 몸이	消日	희움도	亦君恩	이샷다	
④	이 몸이	칩지 아니	희움도	亦君恩	이샷다	

중장에서 지표기능 구절과 제시기능 구절은 전반 후반 각각의 두 구씩인데, 지표기능 구절은 다시 지표기능 어휘 ‘이 몸’과 제시기능 구절 ‘-이 ㉠희움’으로 세분된다.

중장의 지표기능 구절인 전반 두 구에서 ㉠의 어휘는 네 계절에 대한, 화자의 내적 외적 감흥을 응축시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초장의 ‘江湖에 ㉠이 드니’를 이 문장과 연결해 보면, 그 네 계절의 감흥이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그런데 ㉠을 포함한 구절이 지표기능 어휘인 ‘이 몸’을 네 계절에 어울리는 특정한 상태로 구현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閑暇하다’ ‘서늘하다’ ‘消日하다’ ‘칩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중장의 내용이다. 작품①에서 ‘閑暇함’은 중장의 ‘물가 酒興’을 받아 넣고, 작품②에서 ‘서늘함’은 중장의 ‘강바람’을 받아 넣고, 작품③에서도 ‘消日함’은 중장의 ‘고기잡기’를 받아 넣고, 작품④에서도 ‘칩지 않음’은 중장의 ‘차

림새'를 받아 넣으면 내용을 적절히 갖추게 된다. 결국, 종장은 초장과 중장의 의미 결합을 수렴하는 성격을 가진다.<sup>6)</sup>

다음은, 화자의 이러한 삶과 '君恩'의 관계이다. 화자의 삶은 개인의 사적인 차원이라면, '君恩'은 집단의 공적인 차원이다. 곧, 이 둘의 공존은 사적인 차원이 공적인 차원에 포함되는 관계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작품에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은 화자가 공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사적인 思考를 한 것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화자는 자신의 사적인 삶을 공적인 가치관(君臣有義)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것이 '이 몸'의 지표기능과 '君恩'의 제시기능의 관계로써 설명된다.

#### 4. 〈江湖四時歌〉의 짜임과 속뜻

앞의 초·중·종장 분석을 종합하여 작품이 짜인 全貌를 해부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의 '江湖에 ㉞이 드니'는 초장의 후반 두 구, 중장, 종장의 전반 두 구에 대하여 지표기능을 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대전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 다음으로, 초장 후반 두 구의 내용은 중장의 내용을 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이어서, 중장의 내용은 종장 전반 두 구로 응축되어 한결같은 의미—평안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자아낸다. 이대로 네 작품

6) 이에 관련된 김홍규(앞책)와 이종주(續·古時調作家論, 백산출판사, 1990)의 설명이 있다. 김홍규의 설명: “매수의 초장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너그러운 강호 세계의 모습을 본다. …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모습이 매수의 중장에 제시된다. … 종장의 전반부들은 이러한 전개과정을 집약하여 강호에서의 삶을 일련의 포괄적 인식으로 거두어 들인다.”(138~139쪽); 이종주의 설명: “초장이 시적 자아의 객관묘사로 유지되고 있다면, 종장은 현실적 자아의 구체적 삶을 제시하면서, 주관적 윤리의식에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장과 종장의 대극적 괴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장이다.”(16쪽)

을 다시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江湖에 봄이 드니 → 미친 뱀이 절로 난다 → 濁醪 溪邊에 錦鱗魚 | 안주로  
다 → 이 몸이 閑暇히움 → 君恩이샀다
- ② 江湖에 여름이 드니 → 草堂에 일이 없다 → 有信호 江波는 보내누니 부랴  
이다 → 이 몸이 서늘히움 → 君恩이샀다
- ③ 江湖에 가을이 드니 → 고기마다 술져 있다 → 小艇에 그를 시러 흘리띄어  
더더두고 → 이 몸이 消日히움 → 君恩이샀다
- ④ 江湖에 겨울이 드니 → 눈 기피 자히 남다 → 샷갓 빗기쁘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 이 몸이 침지 아니히움 → 君恩이샀다

이러한 전개 of 양상에서 네 작품이 공유하는 '겉틀'이 그 골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江湖에 ... 閑히움'이 하나의 의미를 구현한다. 즉, '계절의 제시' → '계절에 대한 발흥' → '계절의 즐길 행위' → '(心的·身體的) 平安'으로 전개되는 것<sup>7)</sup>이 '속틀'이다. 부연하면, '겉틀'은 겉모양으로서의 큰 골격이라면, '속틀'은 내용의 짜임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연쇄적인 짜임은 네 계절의 연쇄, 네 작품 사이의 점진적인 공간 확대 등과 부합된다. 이러한 부합 양상에서 앞서 언급한 내적 울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속틀의 내용에 대해서 “亦君恩이샀다”는 다른 하나의 의미 구현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앞의 개인적인 내용은 양적으로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뒤의 공적인 내용(君恩)은 양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지만 그 개념의 비중으로는 앞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이 작품들의 흐름이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지다가, 끝에서 急轉하여 느닷없이

7) 작품①: '봄 → 마음속의 흥 → 酒興 → 閑暇함(心的 平安)', 작품②: '여름 → 일이 없음(寂寂) → 강바람이 불어 오(發興) → 서늘함(身體的 平安)', 작품③: '가을 → 살찐 고기 → 고기잡이 → 消日함(心身의 平安)', 작품④: '겨울 → 쌓인(풍성한) 눈(세상의 통일) → 여름뉘시 → 춥지 않음(心身의 平安)'

공적인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이 개념의 비중이다. 이것이 이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법으로서의 묘미라고 할 것이다.

이 작품들의 내용이 '심적·신체적 평안'만을 형상화한 것은, 앞에서 '-도' '亦'의 의미기능을 설명했듯이, 화자 자신의 다른 일들, 특히 宦路의 일들보다 이것이 화자의 현재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환로의 일들은 임금을 보필하는 것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과 사회의 상태 모두가 평안하기 때문이라는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일 것임을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러지 않다면, 개인의 사적인 삶만을 다룰 수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작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戀君이나 紅塵을 다룬 對社會의 내용들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의 내용과는 성격을 달리 한 '亦君恩'으로 感君恩을 표출한 것은 임금의 치세를 태평성대로 칭송하는 암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亦君恩'에 화자의 그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작품 내용의 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②에서 '草堂에 일이 없다'는 것은 바깥 사회에서 할 일이 없음과, 이에 집에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포괄한다. 게다가 집에서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治世나 집의 治家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한편, '일이 없어 閑寂하여 평온한 심적 상태'가 '강바람'을 매개로 '신체적 한적함'으로 전환되면서 그 한적함은 더욱 심화된다. 이 전환은 새로운 '할 일', 곧 '바람을 쐬어 한적함을 즐기는 일'을 만들어낸다. '有信함'이란 화자의 '마음을 알아 제 때에 찾아 온 것'을 뜻하며, 이것은 자연의 조화를 뜻하며, 이 조화는 치세의 화평함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작품③에서 고기잡이는 '살찐 고기'가 가을건이처럼 수확하고 싶은 욕심을 일게 하는 촉매작용을 한 결과이다. 이 욕심은 낚시대와는 달리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의도를 담아 '그물'로 표출된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두고'만 있는 것은 고기를 잡을 욕심을 버렸다는 또 다른 의도를 암시한다. 낚싯대나 그물은 고기가 많은 곳에 던지는 것은 같지만, 낚싯대로는 낚시를 고기가 물어야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은 고기를 낚아 채어 잡는다. '그물을 던져두고'만 있는, 화자의 태도는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기를 당장 잡지 않는 태도'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 것이라는 확신'은 화자의 여유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데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물을 사용한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치세와의 관련이다. 그물은 임금의 교화가 세상에 펼쳐짐을, 고기는 그 교화의 그물에 모여 들기 마련임을 비유한 것이다. 낚싯대로써 한 마리의 고기를 낚는 것은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는 태도라면, 그물은 '물'을 사회(나라)에 비유하고 고기를 백성에 비유하여 백성을 임금의 교화 속에 거두어들이려는 태도라고 구별할 수 있다. 이런 풀이는 개인의 사적인 평안이 사회의 공적인 태평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sup>8)</sup> 이 작품에서 이 경우는 '亦君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작품④에서 '눈이 한 자 넘게 쌓인' 상태는 작품③의 '그물'과 같은 의도적 표현이다. 다만 '그물'은 물 속의 일부분에 국한되며, '눈'은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삿갓'과 '누역(도롱이)'는 화자가 평범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시사한다. 겨울 추위는 신체의 현실적인 고통이다.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이다. 이 요인은 정신적 평안이고, 이 개인적인 평안에

8) 이에 관련된 김홍규의 설명이다. "...관직에서 은퇴하여 閑居하는 강호의 세계와 그에 앞서 몸담았던 정치현실의 세계... "역군은이삿다"를 통해 이 두 세계가 모두 '君恩'이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 있으며, 강호를 지탱하는 자연의 순조로운 질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움직이는 사회의 질서와 연속 내지 합일의 관계에 있다는 의식을 확인한다."(앞책, 141쪽)

서 사회 및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亦君恩이샷다”는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의 치적에 대한 感君恩의 표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작품□에서 ‘미친 興’은 앞서 설명했는데, 앞의 세 작품 분석 결과로써 ‘興’에 ‘感君恩’의 심적 상태를 포함하면 ‘미친’의 의미와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단순하게 春興의 발생을 ‘미친’으로 표현한 것에 그친다면, ‘미친’은 억제할 수 없는 춘흥을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지나친 표현이 되어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한적한 분위기를 깨뜨리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을 때 봄의 생기를 찬미하듯이 임금의 치적을 찬양하는 ‘感君恩’의 심리, 곧 태평성대에 대한 반응을 ‘미친’이 포함하게 되면, ‘미친’의 지나친 감정 표출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頌祝의 성격을 함축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江湖四時歌〉는 ‘계절의 제시’ → ‘계절에 대한 발흥’ → ‘계절의 즐길 행위’ → ‘(心的·身體的) 平安 → 感君恩’이라는 하나의 짜임을 그 방법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평안과 시대의 태평성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한 주제를 하나의 짜임 방법과 네 계절의 다양한 글감을 사용하여 유기적인 전개로 형상화한 것은 이 네 작품이 聯詩調인 것을 밝힌다.

## 5. 마무리

이 논문의 초점은 〈江湖四時歌〉가 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네 계절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서로 다른 글감들을 사용하였어도 내용의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한 연시조이며, 이 통일성 유지는 하나의 일정한 틀을 사용한 데 근거하였음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일정한 틀은 겉틀과 속틀로 나누었다.

겉틀은 네 작품에 공통된 표현 부분이다. 그 성격을 ‘화자의 거처(江湖)’·‘화자(이 몸)’·‘화자와 임금의 관계(君恩)’ 및 ‘강호의 상태(江湖에 ㉠이 드니)’, ‘화자의 상태(이 몸이 ㉡희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초장의 “江湖에 ㉠이 드니”를 구문의 생성 조건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표현의 압축과 간결함을 설명하고, 중장의 “亦君恩이샷다”를 구문의 생성 의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화자 개인 차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이것을 사회적 차원의 태평성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속틀은 작품 내용의 세부 짜임이다. 이에 대해서는 네 작품을 초·중·종장 각각으로 묶어 분석한 다음, 네 작품의 공유된 짜임을 설명하고 각각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겉틀에서 다룬 <江湖四時歌>의 내용이 갖는 특성을 해명하였다.

네 작품의 초·중·종장을 각각 하나로 묶어 종합 분석하기 위하여 指標機能 語句와 提示機能 句節을 설명 방법으로 다루어 그 내용의 짜임을 설명하였다. 초장은 공통으로 네 계절의 흥취를 표현한 것이며, 작중 공간이 네 작품의 배열순서에 따라 ‘마음 → 집 안 → 강 → 마을’로 단계적으로 확장 전개되는 양상을 지적하였다. 중장은 지표기능 어휘인 ‘화자’가 생략되어 제시기능 구절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장의 흥취를 행위나 상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종장은 “이 몸이 ㉡희움”의 전반 구절과 “亦君恩이샷다”의 후반 구절을 나누어, 전자는 중장과 연결하여 함축적 표현임을 설명하고, 후자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가치관(君臣有義)의 관계에서 공적인 가치관으로 사적인 삶을 보장 받으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江湖四時歌>의 속틀의 짜임은 ‘계절의 제시’ → ‘계절에 대한 발흥’ → ‘계절의 즐길 행위’ → ‘(心的·身體的) 平安’으로

전개된다. 문맥의 흐름에서 초장은 중장의 端緒가 되고, 중장은 초장에 대한 反應이며, 종장은 중장의 응축으로서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感君恩'이 포함되면 겉틀의 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속뜻은 개인의 평안을 형상화하여 작품의 本志를 에 둔 것처럼 겉을 꾸몄으나, 본래의 발상은 임금의 치적(태평성대)을 頌祝하려는 것이라고 결론하였다.

#### 〈참고문헌〉

- 황순구, 『靑丘永言研究』, 附錄, 吳氏本 『靑丘永言』, 금방울사, 1980.  
김홍규,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양희찬, 『雙花店의 構造에 대한 再考』, 『國語文學』, 제34집, 국어문학회, 1999.  
이종주, 『續·古時調作家論』, 『孟思誠論』, 백산출판사, 1990.

#### 〈Abstract〉

### A Study on the 〈Kanghosasiga〉

Yang Hee-C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Kanghosasiga" is the Ynsijo which has general unification of the content and having general unification is based on the using one definite frame, although "Kanghosasiga" used different subject matters that have characteristics of four season in forming one theme.

The definite frame is divided into two frames, inner frame and

outer frame.

Outer frame is common in four works, and it represents the place in which the speaker lives(江湖), speaker(이몸),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the king(君恩), the condition of “kangho” and speaker. And in this paper, the generative condition of phrases is so analyzed that the compression and the simplicity of expression are explained, and the purpose of generative phrases is so analyzed that satisfaction at life is represented.

It is considered if it is possible to extended to ‘태평성대(the happy era)’ in the social view.

Inner frame is the detail structure of content of the work. Each of the first, second, third of the verses of four works have common structure. After analyzing each content, the characteristic of “Kanghosasiga” was explained.

The first of verses of “Kanghosasiga” represent gusto of the four season. The second is constructed with ‘the clause that functions as instruction’ because ‘speaker’ that is the words that functions as index, and represents in detail gusto of the first. The third is connotative expression connected with the second. The third implies purpose that the writer try to gain private living with formal viewpoint.

The structure of the inner frame of “Kanghosasiga” shows a process: ‘introducing season’ → ‘gusto about season’ → ‘enjoying with season’ → ‘peace in mind’. The first of verses of “Kanghosasiga” is the clue of the second. The second is the reaction of the first. The third has character as estimation of the forepart. The structure of the outer frame can be shown if the structure of the inner frame has ‘感

君恩'(being grateful to king's grace). ultimate purpose of the writer is to praise king's administration.

*Keywords* : Maeng Sa-seong, Kanghosasiga, Ynsijo, outer frame, inner frame, function as index, functions as instruction, private living, formal viewpoint.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